

여유로운 등교, 아침이 행복한 학교

도교육청, 등교시각 늦추기 교육계획 반영 권장... 초·중학교 8시40분·고등학교 8시20분 이후로

전북교육청은 등교시각을 오전 8시 40분 또는 8시20분 이후로 권장했다. 2019학년도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교 등교시각은 오전 8시 40분 이후, 고등학교 등교시각은 오전 8시 20분 이후로 권장했다. 통학버스 운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결정을 통해 등교시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학기 이전에 통학버스 시간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공동급식 실시학교에서는 점심시

간 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식사 후 충분히 휴식하도록 점심시간은 60분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학교와 맞벌이 가정 등 이른 등교를 해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 입장지도를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학생자치 동아리나 자발적 아침 운동 및 독서 모임 등 학교 여건에 맞는 아침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등교시각 늦추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부모

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보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등교시각 늦추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65교 중 88.2%인 675교가 등교시각 늦추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423교 중 404교(95.5%), 중학교가 209교 중 159교(76.1%), 고등학교가 133교 중 122교(91.7%)였다. 또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

사에서는 '등교시각 늦추기' 영역의 만족도가 7.81로, 전년도(2017년) 7.33에 비해 0.48p 상승했다. 교직원 만족도가 8.2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도 각각 7.81, 7.4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시각 늦추기 정책은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신체적 특성에 맞는 '잠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특히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적 인식 및 직장 출근 문화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경.

'양해모' 헌법소원 제기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인 생존권 침해 행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양육비에 부모 모임인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은 오는 2월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양해모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소원 청구인단 250명을 모집했다. 이들에 의하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양육비 제도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진정 입법 부작위에 기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및 여권 취소 등의 제재 내용도 포함한다. 변호인을 맡은 이준영 변호사는 "양육비 관련 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각하 가능성이 있지만 포괄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밝혔다. 양해모는 진행 결과에 따라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 ▲이미 시행된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행 예정인 법률에 대한 기본권 침해 등과 관련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양해모 남지원 대변인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침해 하는 행위인 만큼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 개정과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 전주 동물원과 교육과 연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인식 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생물 다양성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전주 동물원 '맞손'... 동물 전시·교육·연구 분야 등 교류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박진호)이 전주 동물원(원장 조동주)과 교육과 연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인식 향상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15일 전북대 자연사박물관에서 박진호 관장과 조동주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물 전시와 교육, 연구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상호 간 문화시설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야생동물 전시와 교육, 연구 등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박진호 관장은 "전주 동물원과 긴밀한 협력이 많은 이들에게 생물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 전시와 교육, 연구 등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반값 등록금'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

전북대, 11년째 등록금 동결

전북대학교가 2019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 2009년 처음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이후 11년째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게 됐다. 2012년에는 5.6%를 인하한 바 있다. 전북대는 최근까지 2차례 걸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 재정이 매우 어렵지만 어려운 경제 현실에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는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장은성 기자

인구 절벽에 따른 정원 감축과 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오랜 등록금 동결이 학생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속 재정과 국가장학금 확보, 교육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 등에 힘쓰기로 했다. 박주미 학생처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값 등록금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 복지나 교육 등에 어려움에 없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오늘 한-베 평화교육교류 출판나눔회 열어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한-베 평화교육교류 출판나눔회 '신짜오 베트남'을 개최한다. 지난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보내고 학생 20명과 지도교사 2명 등 총 25명이 베트남 다리를 방문해 2018 한-베 학생중심 평화교육교류 활동을 현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출판나눔회는 윤기범(군산고), 강민영(화산고), 유여진(교사)의 사회로 양국 학생이 공동 추진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듬별, 개인별 포토북을 제작 발표해 평화교육의 의미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장은성 기자

'신짜오'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으로 '신짜오 베트남' 출판나눔회에서는 양국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한 수학교구 교재를 활용한 탐방일, 양국 음식 만들기 및 언어 배우기, 소수민족 마을 방문 체험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과 베트남 닥락성은 2016년부터 교육교류를 위해 의견을 모아 왔고 지난해 2월 상호우호협력을 체결해 12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교육교류를 베트남 학생 중심으로 추진하고, 참여 학생도 중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희망의회의!

지도자는 희망을 파는 상인!
정치는 다음세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희망을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회의 MUJU-GUN COUNCIL